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은 무슬림 고객 유치】

안녕하십니까. 오카야마시장 오모리 마사오 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세계에서 16억명을 넘어 향후의 인바운드(방일 외국인 여행) 시장의 견인 역할을 할 무슬림(이슬람 신도)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와 자카르타(인도네시아)에서 홍보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오카야마 연계 중추 도시권을 결성하는 마니와 시·키비추오 초와 함께 하는 「오카야마식 웰스 관광여행 거점화 사업」의 일환으로, 저는 키비추오 초장과 함께 톱 세일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벚꽃이 인기가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내년 봄 여행 상품 조성을 위한 11월이 홍보하는데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라고 꼭 오카야마의 매력을 PR 하고 싶다는 현지에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15일과 17일의 양국에서 개최한 관광 세미나에서는 2개 시 1개 초의 매력과 관광지,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식사·예배·이슬람교의 습관에 정통한 가이드·현지인과의 교류 사업 (예를들면, 행사의 하나인 사미센모치츠키) 등의 PR을 비롯하여, 쿠알라룸푸르에서는, 현지 여행 사간의 오카야마 관광 투어 여행객의 목표를 연간 240명에서 480명으로 하는 이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16일에는 말레이시아 국영방송국의 정보 방송 (캐스터가 중화계 남성과 인도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연 다민족 국가를 인식) 에

생방송으로 출연하여, 널리 오카야마 투어의 매력을 PR한것 외에, 17일에는 자카르타의 현지 여행사 방문 세일즈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일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 중에서도 충실한 홍보활동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 12월과 내년 1월 예정으로 양국의 여행사 등을 초대하여 실시하는 오카야마 시찰 투어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오카야마의 매력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화제가 바뀔 때마다 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때 마라톤 선수의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일본정부 관광국(JNTO) 자카르타 사무소장 토미오카씨로부터, 오카야마 마라톤에 참가한 선수들 상당수가 「참 따뜻한 대회였다.」라고 평가한 것을 듣게 된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 자신은 직전인 일요일(13일)에 펀 런닝(fun running) 4.5 k m를 달린 직후라 멀리 떨어진 자카르타에서 이 이야기를 듣게된 것은 정말 놀란것과 함께 다시한번, 한사람이라도 많은 참가자가 오카야마의 팬이 되는 매력적인 이벤트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